

제 4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5월 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3) 과학적 지식, 즉 근대과학이 소유하거나 지향하는 종류의 지식이 인간지식의 최고 형태라는 믿음에는 과학 이전의 지식에 대한 비하가 내포되어 있다.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과학 이전에 존재했던 지식 사이의 대립관계를 검토할 경우 실증주의에는 거의 숨김없이 과학 이전의 지식 관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회의 및 그것으로부터의 급진적인 단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분명히 실증주의는 과학 이전의 지식을 불신하며, 그것을 민간신앙에 비유하기를 즐겨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모든 종류의 헛된 연구들과 복잡스런 모자란 일들을 조장하고 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한의학에도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효용이 있어 존재해온 것이다.

데카르트의 회의란 모든 것을 의심, 상식도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이후 과학 중심주의가 되어버렸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열 살된 아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들조차 사실로서 받아들이려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검증이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이 점을 가장 간단한 예로 설명하여 보자. 사회과학에 있어서 모든 연구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들이 인간을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근본적인 지식은 교실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사회과학에 의하여 과학적 지식으로 변형되는 것도 아니며, 최초의 위상은 결코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된다.

믿음의 상실, 상식의 타락

분명한 진리는 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과학 이전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과 존립을 함께 하는 모든 과학적 연구들도 지식의 성격을 결여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도 충분히 또는 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과학적 연구로서 타당성을 갖는 한 이러한 모든 연구들에 선행하는 사고 또는 성찰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도 과학도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시장의 수용력이 과학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이 과학을 재단해야하며 과학이 시장을 재단할 경우 공산주의가 된다.

부분적으로는 해석가능하나 인간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다 알기는 어렵다.

정치적 사실들, 정치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들, 정치적 사실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관계들, 혹은 정치 행태들의 법칙들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연구되는 현상들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고립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화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될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정치현상들을 그것들이 속한 전체 속에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전체, 즉 전체적인 정치 혹은 정치·사회의 질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정치>를 있게 하는 정치질서의 유형이나 연구되는 특정한 <집단정치>가 전제하고 있는 정치질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않고는 <집단정치>에 대해 과학적인 것으로 볼릴 만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집단정치도 집단정치의 목적을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다.
의학의 목적이 웰빙인 것을 이해해야 의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한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일반의 성격은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규명될 수 없다. 과학주의적 정치철학자들은 그 문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 정도로 끝내고 있다. 다시 말하여 그들은 기존의 정치질서 및 그것에 반대

되는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지평 안에 머뭇으로써 기존의 정치질서를 절대화하고 있다. 그러한 과학주의적 접근은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포기하도록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의견을 무사고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절대 옳고 다른 제도는 틀리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
민주주의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예로서 정치과학은 정치적인지 않은 것들로부터 정치적인 것들을 분명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제기되고 답변되어야 할 것도 함께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은 과학적으로는 다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변증법적으로만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변증법적 접근은 필연적으로 과학 이전의 지식에서 출발하며 그러한 지식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다. 선형적으로는 알 수 없다.